

## 넓은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서천

강 육 자유기고가

**천** 안에서 갈라진 장항선 철도의 종착지가 서천군이다.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군(舒川郡)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와 인접해 있으며 서해바다 금강 입구는 유부도, 서북부는 보령시, 동북부는 부여군과 경계를 두고 있다.

차령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한 줄기 산맥이 슬쩍 지나치는 군의 북동부는 지대가 조금 높다. 그러나 보령시와 부여군에 맞닿은 곳에 솟은 원통산, 취산, 희이산, 천방산 같은 산들은 거개가 높이가 삼백 미터도 채 되지 않아 대체로 지대가 낮다. 야트막한 구릉들이 군 남쪽으로 갈수록 꼭 가라앉아 시야가 탁 트인 넓은 평야를 이루는데 이것이 내포평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천평야이다.

넓은 들과 서해바다가 함께 있는 서천군은 전형적인 농·어업군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고장이다. 서천은 근래에 와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서해안권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장항산업단지와 종천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점차 공업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해안선의 길이가 70km가 넘는 서천군이지만 경제적으로 수산업의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1979년에 서해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바다가 오염되어 동백정 해수욕장은 폐장이 되었고 해안에 있던 김 양식장도 걷어치웠다. 서천군의 수산물로는 연안에서 갈

치, 오징어, 조기들이 잡히고, 몇 안되는 섬에서는 백합, 대합, 주꾸미 등이 좀 잡힌다.

서천읍보다 40년이나 먼저 읍이 된 장항읍은 서천군 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다른 지역에 견주어 경제력이 넉넉한 편이다. 장항읍은 1930년에 장항항이 열리면서 이웃 군산과 함께 급속히 발전되었다. 서울과 장항을 잇는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고 1936년에 장항 제련소가 생기자 이곳이 활기를 띠는 듯하였으나 군산시가 갑자기 커지자 그 활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나라 모시의 섬세함과 색채는 흔히 매미날개 같고 눈과 같이 희다고 아름답게 형용되었다. 서천군의 한 면인 한산(韓山) 지방에서 나는 모시는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택리지」의 ‘복거 총론’편에 보면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논”이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한산 세모시’가 모시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다. 한산 지방의 모시 짜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시는 벗긴 모시풀의 껍질을 잘 손질하여 실을 뽑아낸 후 수공으로 짜서 만드는 것으로 손이 매우 간다. 모시 길쌈 과정은 재배와 수확, 껍질 벗기기, 모시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꾸리감기, 모시짜기의 순서로 이어진다. 특히 모시를 짜는 것은 고도의 숙련된 솜씨를 필요로 하며 옷 두벌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한 필을 짜는데 보통 닷새 정도가 걸린다.



한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이어온 고장으로 매 5일 마다 모시 새벽시장이 형성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새벽 안개 속에서 촛불로 모시의 진품을 가리는 시골 장터 모습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 한산에서는 매년 5월 초순 ‘한산모시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서천군의 또 다른 특산물은 한산 소곡주이다. 건지산 계곡의 맑은 물로 빚은 청주인 소곡주는 선산 약주, 서산 두견주, 안동 소주, 동래 산성 막걸리와 함께 유명하다. 한산 소곡주는 찹쌀로 빚어 100일 동안 익혀서 만드는데 조선 초기부터 한산, 기산 등지에서 만들어져 즐겨 마시던 술이다. 그렇지만 이 술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백제 멸망 후 그 유민들이 주류성의 마지막 항전 이후 그 한을 달래기 위해 빚어 마셨다고도 한다.

소곡주는 앳은뱅이 술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한산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는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 주막에 들러 미나리부침을 안주 삼아 소곡주를 마셨다. 한 잔 술에 취한 그는 봇짐을 풀어놓고 계속 술을 마셨다. 취흥이 돌아 시를 읊으며 달을 즐기다가 낮이 되면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다시 술을 기울였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버려 그만 과거 볼 날짜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소곡주를 일명 앳은뱅이 술이라고 한다.

한산면 지현리에 있는 건지산성은 사적 제 6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서산군의 해미읍성이나 공주시의 공산성같이 사람들이 잘 찾는 곳은 아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산성이 쌓인 때는 백제 말기나 통일 신라 초기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산성은 백제가 망한 뒤 백제 유민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근거지로 알려진 주류성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건지산성은 말 안장 모양의 산봉우리에 흙과 돌로 축조한 산성이다. 약 300m의 성 둘레를 먼저 흙으로 쌓아 올린 뒤에 산성의 북쪽

산봉우리를 기점으로 서북쪽 계곡을 포곡식으로 약 1,200m 둘러싸서 증축하였다. 이 산성은 자연적인 지형이 동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수구(水口)와 주문적인 동문 터가 동쪽 계곡 입구에 있다. 성내에 군창지로 보이는 곳에서는 까망게 탄 쌀이 지금까지도 나온다.

서해로 불쑥 빠져 나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 서면과 비인면이다. 이곳 서면의 춘장대 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와 함께 깨끗한 모래와 맑은 물, 그리고 울창한 아카시아 나무숲으로 유명하다. 해수욕장 주변 자연 경관이 뛰어난 이곳은 각종 기관의 단체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천역에서 16km 거리로 시내버스가 5분마다 다닌다.

비인만의 맨 끝에는 동백정이라는 누각이 동백나무 숲 속에 자리잡고 있다. 400여년 전 제단을 만들 당시 그 주변에 동백나무 80 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 번져 오늘의 명물인 동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곳 어부들은 동백꽃이 붉게 피어날 사월 무렵이면 이곳에서 제사를 올린다. 삶은 돼지를 통째로 제단에 올려놓고 어부들은 그 해의 풍어를 빌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금강하구 뚝은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와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길이 1,841km의 뚝으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년 동안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0년에 완공되었다. 방조제가 1,127m이고 갑문이 714m인 이 뚝은 1억 3천만톤의 담수량을 자랑하며 배가 통과할 수 있고 물고기가 왕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금강 하구는 갈대숲과 어우러져 새로운 철새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 동안 고리와 청둥오리, 세계적인 희귀 조류인 검은머리 물떼새와 검은머리 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조성된 관광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썰매장과 자동차 야외극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